

“참 수행은 입에 문 풍선 부풀리는 것 같아야”

법정 스님 (예산 향천사 주지)

경제공황으로 살기 팍팍해진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처럼, 가뭄에 바닷물 드러낸 실개천이 보인다. 바람만 불어도 먼지가 이는 모양새는 외경(外境)에 끄달려 탐·진·치 삼독(三毒)을 일으키는 중생심과 같다. 때마침 불어 닥친 황사에 더해 시야를 질게 가리는 흩먼지가 우리네 입장이요, 중생의 무명인가. 서해고속도로를 달려 신작로를 지나니 ‘금오산 향천사’를 알리는 초석이 보인다. 주위로 수목에 둘러 싸인 길은 포얕고 말갛다. 아기가 지닌 마을을 지나 절에 오르는 좁은 길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한다.

백제 의자왕 무렵, 일본 백제에서 머물던 의각 스님은 중국에 건너가 육으로는 3053불상과 16나한 존상을, 향나무로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상을 조성했다. 3년 만에 불사를 마친 스님은 부처님을 돌배에 모시고 오산현 북포해안(峴) 예산읍 창소리에 도달했다.

절터를 찾아 1개월여 배에서 기도했던 의각 스님 앞에 허투는 금까마귀 한 쌍이 날아왔다. 스님이 금까마귀를 따라가니 한참을 날던 금까마귀가 날개 짓을 쉬고 물을 마셨다. 스님이 다가서자 금까마귀는 자취를 감추고, 이내 향냄새가 가득했다. 금까마귀가 머물던 곳에 절을 지은 스님은 산이름을 금오산(金烏山), 절 이름을 향천사(香泉寺)라 지었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향천사를 찾아 법정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며 “차나 한잔 하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한달음에 바빠 달리는 속내를 스님은 아시는 걸까? 찻잔에 차를 더하는 스님에 질세라 객도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하며 말없이 입술을 적신다. 한 잔 다시 또 한 잔, 찻잔이 채워지고 비워지기만을 반복할 뿐 고요하다. ‘이 순간, (차 마시는 본분을 잊고) 먼저 말문을 열면 본분사(本分事)를 잊은 철부지가 되거나 않을까?’ 고민하던 객이 먼저 말문을 연다. “스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 스님은 “하~ 차나 하고 하자니까, 급해? 한잔 더 할까?”라며 말을 막는다. “네, 스님, 한잔 더 주십시오.” 또 다시 두어 잔 더 마시고 나니 조주 선사의 깍다거(喫茶去)를 알뜰따듯 하다.

때가 됐나보다. 법정 스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하~ 어떤 말을 들겠다는 건지, 나는 이야기도 잘 못해. 물어봐, 묻는 말에 대답 할테니까.”

오랜 기다림, 침묵을 깬 스님의 말씀은 “물어라, 답해주겠다.” 묻지 않는 자는 답을 구할 수 없듯이, 발심을 해야 수행을 하고, 수행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큰 의심이 있어야 화두를 깨듯 스님의 말씀도 그러했다. 부처님 가르침이 자력(自力)인 까닭이다. ‘잡시나마 차 마신 공덕(?)으로 공짜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객이 뜨끔했다.

객이 하나를 질문을 던지자 법정 스님의 법문보따리도 풀리기 시작했다.

스님은 15세에 출가했다. 모두가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 “절에 가서 생활하면 좋겠다”던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덕숭산 정혜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인친 용화사 창건 당시부터 전강 스님에게 선을 배웠다.

“지금까지 이만큼 사는 것이 전강 스님 모시고 공부한 덕분 같아. 공부할 때 아무지게 했지. 그때는 많이 자야 오전 12~3시까지 3시간씩만 자고 살았어. 묵언·탄상·환안 스님 모시고 공부했는데, 중노릇한 보람은 그때가 최고였어.”

법정 스님이 화두 외에 평생 마음에 담은 법구는 “부처님 간 곳 알고자 하는가? 단지 이 말소리 나는 곳일세.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欲識佛去處 只這語聲是 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다. 부대사(傅大士, 497~569)가 쓴 선시의 일부를 인용했던 전강 스님의 가르침에 법정 스님은 씬 없이 스스로를 경계하며 초발심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다.

“전강 스님에게 처음 무(無)자 화두를 받았어. 판치생모(板齒生毛, 판때기 이빨에서 털이 난다) 하라는데, 의심이 안났지. 간화선은 의심이 생명인데 의심이 안나니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몇 년을 꼭 참고 버텼어. 앉아 있느라 웅쓰며 웅맹정인 했지.”

그 후 법정 스님은 공부에 더욱 재미를 붙여 웅맹정진을 이어갔다. 1주일 웅맹정진 하던 중 4일째 되던 날, 안개가 걷히는 듯한 것을 느꼈던 스님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됐다.

“어릴 적 서당에서 보던 책들이며 모든 것이 한 눈에 다 꿰지더라고. 1700공안이 모두 타파가 됐어. 대중과 말할 때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할지 미리 알아서 서너 마디는 미리 준비하고 말하게 됐지. 모든 것을 알고 환하게 보게 되니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

하지만 법정 스님의 신통은 그걸로 끝났다. “당장 뛰어가 조실스님과 법거랑을 해야 하는데, 2~3일 남은 정진기간 꼭 채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겨. 앞서서 화두를 붙잡아야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화두는 어디 가고, 얽한 것만 맞춰보고 정진 쏟아보니 다시 안개가 끼듯 하더라고. 결국은 조실스님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루묵이 돼버렸지.”

전강 스님 이후로도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두루 모셨던 스님은 큰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자신의 경험 탓에 스승의 역할

“급해? 차 한 잔 더 할까?”

참선하려면 ‘평상심’ 제대로 알아야

당시 용화사에서는 전강 스님이 지대방 문을 열고 너머에 앉아계시고, 열댓 스님들이 마주보며 12시간씩 정진했다. 대중들이 졸면 전강 스님이 소리를 질렀는데, 항상 “법정이 저 놈 잠만 자는 것 봐라” 하며 호통 쳤다.

“졸지도 않는데, 매번 전강 스님이 나만 나무라는 게 억울해서 짐을 몇 번이나 꾸렸는지 몰라. 그때 송담 스님이 ‘법정 자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일 막내라 그런 것이니 서운해 하지 말게나’ 라고 붙잡아서 꾸렸던 짐을 여러 번 다시 풀었지.”

법정 스님은 화두도 안들리는데 화두 드는 연습(?)만 하며 세월을 보냈다. 3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하늘을 보니 푸른 하늘에 둥근 달이 맑게 보였어. 어찌나 개운하고 또렷하던지. 그 달은 가슴에 담고 해체 후 동화사로 갔지. 효봉 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였어. 동화사에서 가서는 화두를 바꿔봤어. 무자 화두에서 이렇고(是甚麼)로 내 마음대로 바꿔. ‘이 몸중이가 송장인데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이나’ 하고 찾으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한번 화두를 들면 30분, 1시간은 훌쩍 가버리더라고.”

을 강조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맞닥뜨리는 경계에서 스승의 역할은 중요해.”

이어 법정 스님은 후학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공부 해보니 정말 되더라고. 그 맛은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 그때의 환희심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유할 수가 없어. 지금은 도루묵이 됐어도 그 경험 덕분에 내게는 신념이 생겼어. 스님이라면 적어도 한번 죽자사자 용을 써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타락하지 않아.”

법정 스님은 근거에 맞는 수행을 강조했다. “참선을 하려면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제대로 아는 자라야 해. 아니면 주력을 해야지. 경전을 읽거나.”

법정 스님은 스님들에게는 선방에 가기 전 기도 정진할 것을 권한다. “참선이 어려운 신도에게 ‘불보살님, 신장님 누구든 당신 한 몸 구제해줄 만한 힘은 가진 분들이나, 무조건 열심히만 하라’고 말하지.”

수행자로 살아온 스님은 “참선 공부는 풍선 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풍선을 입에 물고 있어야



법정 스님은 1944년 서산 출생. 수덕사에서 1969년 월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63년 수덕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이듬해 범어사승가대학을 수료했다. 인친 용화사 안거를 시작으로 제방선원에서 16하안거를 성만했다. 광천 영봉암 주지 등을 거쳐 2003~2007년 예산 수덕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현재 예산 향천사에 주석하고 있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3월12일(목요일) ▶ 교육 기간: 6주(24시간)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100만원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 빙의와 神柄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 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우학스님의 빛깔있는 법문(전5권)에 이어 부처님이 계신 화엄의 세계, 그 화엄의 세계에 들기 위한 불자의 삶의 자세를 우학스님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풀어낸 생활 속 법문집!

화엄경약찬게 법문(1)

글과사진 無一 우학스님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부처님 세계, 정토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토는 반드시 대중성을 요구합니다. 함께 가면서 너와 내가 고루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토로 바꾸려면 늘 대중적으로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혹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웃을 보살피고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입학상담) 053 474 8228 | www.TVbuddha.co.kr | 053 475 3707